

민주, 통합비례 구상...비례 통 큰 양보·지역구 단일화 요구

'통합비례정당' 선정 방식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통합비례정당' 창당에 따라 비례대표 선정 방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통합 비례정당을 위해 '지역구-비례선거연합' 연석회의를 제안했고, 비례대표 배분과 지역구 후보 단일화가 양대 의제다.

이들 의제에 범야권의 의견 접근이 이뤄져야 통합비례정당 창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민주당의 고심도 깊어지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우선 비례대표 배분과 관련해 상위 순번을 통째로 비(非)민주당 인사들에게 내준 직전 21대 총선 모델을 검토 중이다.

당시 민주당은 총선을 한 달 앞두고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만들고, 당선권인 비례 1~10번을 민주당 소속이 아닌 범진보 계열·군소정당 인사들에게 양보했다.

물론 이들 10명 가운데 옹혜인(기본소득당)·조정훈(시대전환) 의원을 제외한 8명이 총선 이후 민주당으로 옮겨가며 결과적으로 2석만 내준 셈이긴 했다.

4·10 총선에서 다시 통합비례정당이 만들어지면 이번에는 민주당 후보와 비민주당 후보를 활짝 순으로 번갈아 배치하는 방안이 당내 일각에서 거론된다.

통합비례정당 논의에 참여하려는 3개 군소정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열린민주당) 연합체 '새진보연합'이 일찌감치 민주당에 제안한 방식이기도 하다.

지역구 후보 단일화 문제 역시 통합비례정당 창당 과정에 만만치 않은 난제다.

경남 창원성산 등 전통적으로 군소 야당이 비교적 강세를 보인 일부 지역구에선 벌써 범야권 후보들 간 기 싸움이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연석회의를 통해 비례 배분 문제부터 잠정 합의한 뒤, 지역구 후보 단일화는 추후 지역별 판세를 보고 정하는 방안이 무개를 두고 있다.

민주당이 비례 배분에서는 군소정당에 '통 크게' 양보하되, 지역구는 자당 후보로의 단일화를 강화

1~10번 통째로 양보 검토

민주·비민주 번갈아 배치도 논의

지역구 후보 단일화도 난제

녹색정의당 참여 여부 의견 분분

정당득표율 3% 넘기느냐 관건

게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실제로 민주당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 추진단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기는 후보'를 지역구 연합 원칙으로 내세운 바 있다. 지역구는 본선 경쟁력이 높은 후보로 단일화하겠다는 뜻으로, 군소정당 후보에 일방적으로 지역구를 양보하지는 않겠다는 의미기도 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5일 범야권의 지역구·비례 선거대연합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진보개혁진영의 만행으로서 책임에 상응하는 권한도 당연히 가지는 것이 상식"이라고 한 말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녹색정의당과 진보당은 통합비례정당은 물론, 사전 단계인 선거 연합 연석회의의 참여 여부조차 정하지 못한 상태다.

특히 녹색정의당은 통합비례정당 참여를 두고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데다 자칫 당의 존립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매우 신중한 모습이다.

녹색정의당 관계자는 "민주당 주도의 비례정당 참여에 대해 지도부는 물론 당원들의 의견도 분분하다"며 "당장 결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녹색정의당과 진보당이 결국에는 통합비례정당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으리라는 관측도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다.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으려면 '봉쇄 조항'으로 불리는 정당 득표율 3%를 넘겨야 하는데,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녹색정의당 지지율은 3% 정도에 머물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가운데)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례정당 투표지 최대 80.5cm... '완전 수개표'로 진행

선관위 등록 정당 50개

투표용지 분류기로는

최장 34개·46.9cm까지 가능

4·10 총선 비례정당 투표 개표는 지난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지 않는 '완전 수개표'로 진행될 전망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로 기울면서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정당 난립 상황이 재연, 투표용지 분류기를 사용할 수 없을 지경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가 이번 총선 개표에 사용하는 분류기는 최대 34개 정당, 최장 46.9cm의 투표용지까지 처리할 수 있다.

현행 분류기는 4년 전 총선을 계기로 새로 도입됐다. 당시 분류기로는 장 34.9cm의 투표용지까지만 처리할 수 있었는데,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으로 35개 정당이 이름을 올리면서 투표용지는 48.1cm까지 길어졌다.

이 때문에 지난 총선의 비례대표 선거 개표는 분류기를 쓰지 못한 채 완전 수개표로 이뤄졌다. 2002년 지방선거에서 분류기를 도입한 지 1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현시점 기준으로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은 50개, 활동 중인 정당준비위원회는 12개다. 이들 정당이 모두 비례대표 후보를 낼 경우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는 80.5cm에 달한다.

비례대표 선거 참여 정당은 20대 총선에서 21개였지만, 준연동형 비례제가 처음 도입된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35개로 늘었다.

특히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1~3월에 만 20개 넘는 정당이 만들어지면서 준연동형 비례제가 '정당 난립'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총선에서도 이런 현상은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커 비례대표 선거 개표는 또 한 번 완전 수개표로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준연동형 비례제가 유지돼 4년 전처럼 비례대표를 노린 정당이 대거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선관위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최

근 총선을 앞두고 정당 간 연합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정당은 현재 등록 정당보다 적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원직과상식, 새로운선택은 '개혁신당' 이름 아래 합치기로 했다. 더불어 민주당 중심으로 '통합 비례정당'까지 만들어지면 실제 투표용지 상 비례대표 정당은 더 줄어들 수 있다.

신생 정당이 우르르 비례대표 선거에 뛰어들고 해서 이들 정당이 모두 의석을 확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 총선의 경우 비례대표 후보를 낸 35개 정당 중 1석 이상 가져간 정당은 5개였다. 나머지 30개 정당은 득표율이 3%에 못 미치면서 '봉쇄조항'에 따라 의석을 얻지 못했다.

현행 정당법은 득표율 2% 미만인 정당은 선관위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헌법재판소가 '정당이 언제든지 해산될 수 있거나 정당의 활동이 임의로 제한될 수 있다면 정당 설립의 자유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며 이 법에 위헌확인 결정을 내려 실제 정당 취소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제3지대 정당 통합 '개혁신당'... '위성정당 안 만들 것'

제3지대 정당과 신당 추진 세력들이 설 연휴 첫 날인 지난 9일 통합을 전격 발표했다.

이념과 정체성이 다른 개혁신당·새로운미래·새로운선택·원직과상식 등 4개 세력이 '화학적 결합'을 이뤄내기에 어렵다는 관측이 있다. 이에 공약, 공천 등 총선 준비 과정에서 언젠가 파열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미래, 금태섭 대표의 새로운선택과 이원욱·조용천 의원의 원직과상식은 이날 '한 배'를 타고 총선을 치르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제3지대 4개 세력이 뭉친 개혁신당은 설 연휴인 지난 11일 첫 회의를 가졌다.

개혁신당 이낙연·이준석 공동대표와 김종민·이원욱 의원, 금태섭·김용남 전 의원 등 6명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한정식집에서 만찬 회동했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날짜가 그리 길지 않았는데 통합 협상을 타결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이준석 대표도 큰마음으로 통합이 잘 이뤄지게 도와줘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공동대표는 "어떻게든 통합이 이뤄졌고, 통합은 이제 시작"이라며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어려운 고비를 잘 넘어 여기까지 왔고, 나머지 반을 채우는 건 저희의 역량이자 저희의 자세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은 이날 회동에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 거대 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맞춰 위성정당 창당을 사실상 공식화한 상황에서 이들의 차별화를 꾀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아토피 초등학교, 장성으로 유학오세요

아토피 유학 설명회

- 장소 : 장성문화예술회관
- 일시 : 2024년 02월 28일 (수요일) 15:00

우리 아이 아토피! 온 마을이 함께합니다

- 피부과 전문의 및 한의원의 정기 진단 진료
- 통합의약의 입장에서 전문약사가 진행하는 숲이 보낸 처방전
- 숲해설가 및 산놀이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어린이 숲속 놀이
- 놀이 전문가가 진행하는 황토길 산책 및 맨발걷기
- 전문한의사를 한방주치의 제도 아토피 치료
- 교육심리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모교육
- 숲에서 이루어지는 1박2일 가족캠프

특별혜택 - 거주 펜션 지원 (선착순 30명)

축령산 자연속에서 신나게 놀아요
아토피 관련 치유 프로그램
다양한 방과후 특별교육(물놀이 숲놀이)

1급수 축령산 모암저수지

어린이 물놀이터, 숲놀이터

개장예정

전라남도 장성교육 지원청 (061) 390-6000